

### 자신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네덜란드 출신이고, 베를린에서 그래픽디자이너, 영화감독, 모델 및 아티스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요즘은 고객을 위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아티스트 친구들과 협업해 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 당신의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흥미로운 작품이 많아 한참을 구경했다. 예술적 스타일도 명확한 것 같은데, 이런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는 편인가?

나의 생활과 작업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내 주변의 멋진 사람들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패션, 사랑,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영역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하는데, 이 주제들이 내 작업의 주축이 된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존재다.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아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전거를 타고 베를린의 거리를 달리다 보면 건축과 자연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 속에서 독특한 장면을 마주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가끔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중독적인 테크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

### 당신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요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최근에는 이분적 성 구별에 얽매이지 않는, 논바이너리(non-binary) 퍼포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서구의 시대정신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모순을 느끼곤 한다. 나 또한 동성애자이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이고, 내 작품이 사회에 올바른 균형추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베를린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느낀 이 도시의 모습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것은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롤러코스터 탈 때 트랙에 들어서면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될지 몰라 떨리고, 때론 이상한 코너와 지루한 구간도 마주하지만, 다시금 속도를 내서 위아래로 달리지 않

는가. 그때의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기분을 베를린의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베를린 라이드'를 꼭 직접 즐겨보기를 바란다.

베를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의 느낌이 잘 담긴 장소를 추천해준다면? 베를린에는 공원이 참 많다. 그중 아무 공원이라도 꼭 가봤으면 좋겠다. 특히 온갖 자유로운 영혼이 모이는 괴를리처 공원(Görlitzer Park)을 추천한다. 진지하면서도 멋진,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가? 당신이 그리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포에버 인컴플리트(FOREVER INCOMPLETE)'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나의 예술적 여정도 절대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요즘 예술계에서도 점점 더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덕에 나도 예술가로서 한 뼘 더 성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작업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p.s.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 이성애에 관한 관심만큼 성 소수자를 지지해주세요!